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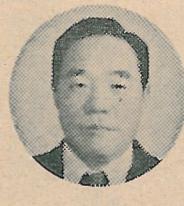
경찰계통의 東國人 현주소

國內 치안유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민중의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경찰계통의 東國人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67년 모교 경찰행정학과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이 후부터 자국 국민과 東國人의 경찰인구도 매년 증가되어 왔다.

京郷 各地서 민중의 지장이 없도록 다해와

警行科설치로 동문수急増, 점차부리내려

정보1과장 박정배(67法學) 등 부, 강연도경찰국장 柳來聲(61英文) 등, 駐日대사관 부관 李永振(68法學) 등, 그리고 이 범에 상응하여 부산시경찰국장(57法學) 등 1과장 박정배(67法學) 등, 강연도경찰국장 柳來聲(61英文) 등, 駐日대사관 부관 李永振(68法學) 등, 그리고 이 범에 상응하여 부산시경찰국장(57法學) 등



국가보위 立法회의 議員인명



徐京保 (51史學) 柳漢烈 (59法學) 趙香祿 (51史學) 柳漢烈 (59法學)



趙香祿 (51史學) 柳漢烈 (59法學)



柳漢烈 (59法學)



文 明 (합판정장)

海運港灣廳長으로 轉任발령 交通部서 18년여 奉職해와

辯護士로 法益보호에 앞장 15년여의 일선 檢事職사임

國民銀行 한남지점장으로 李鍾茂(59法學) 李鍾茂(59法學) 李鍾茂(59法學)

輸出的 産業 張相健(59法學) 李起彬(59法學) 洪鳳來(59法學)

結婚 李根陽(52政治) 李炳益(78經濟) 李炳益(78經濟)

榮進·轉輔 俞永植(59法學) 朴熙重(62政治) 金卓中(54經濟)

同門動靜 同 金鍾浩(59法學) 李鍾茂(59法學)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universities (慶州大學, 師範大學, 工科大學, 農科大學, 經商大學, 法政大學, 文理科大學, 佛教大學) and rows for different departments and programs. Includes a section for '서울本校' (Seoul Main Campus) and '1981-1982 Academic Year (Pre-period)'.

학문의熱氣... 각종學術行事풍성

時宜적절한 主題선정해 진지하게 討論

大學의 목적은 研究와 教育기능에 있다. 이러한 實心을 우리는 活氣를 되찾은 캠퍼스에서 實感한다. 강의실과 연구실 모두가 學問의 열기로 진지하고 단호하다. 眞理의 愛慕者들간에 오가는 對話와 토론에서 우리는 더욱 밝은 학문의 세계를 기대한다. 이번 가을엔 각종 學術行事가 풍성하게 펼쳐진 것도 특색이다. 특히 「韓國史교육의 反省」의 제11회 師範大교육문제 심포지움, 「韓龍雲文學의 評

師範大 교육문제심포지움

모교 師範大學(합정) 김長好(교수) 주재 제11회 교육문제 심포지움은 모교 南都泳(교수) 주재 제11회 교육문제 심포지움(역사교육과) 서울대 李元澤(역사교육과) 교수 등 4명의 발표자와 18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교수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韓國史 교육의 反省

이러한 眞理의 愛慕者들간에 오가는 對話와 토론에서 우리는 더욱 밝은 학문의 세계를 기대한다. 이번 가을엔 각종 學術行事가 풍성하게 펼쳐진 것도 특색이다. 특히 「韓國史교육의 反省」의 제11회 師範大교육문제 심포지움, 「韓龍雲文學의 評

바람직한 새 교육좌표모색

민중적 道德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眞理의 愛慕者들간에 오가는 對話와 토론에서 우리는 더욱 밝은 학문의 세계를 기대한다. 이번 가을엔 각종 學術行事가 풍성하게 펼쳐진 것도 특색이다. 특히 「韓國史교육의 反省」의 제11회 師範大교육문제 심포지움, 「韓龍雲文學의 評

한국文學研究所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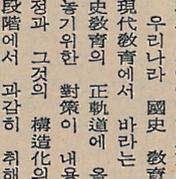
韓國文學研究所(소장 김起東교수)에서는 제3회 「韓國文學 學術會議」을 「韓龍雲文學의 評價」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8일 1시 모교본관 종합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韓龍雲문학의 評價

韓國文學研究所(소장 김起東교수)에서는 제3회 「韓國文學 學術會議」을 「韓龍雲文學의 評價」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8일 1시 모교본관 종합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현대文學에 끼친 영향 조명

韓龍雲은 萬海의 小説의 餘波를 繼承하여 現代文學에 影響을 끼친 作家로 評價되고 있다. 그의 小説은 社會의 眞實을 暴露하고 있다.



價를 大폭 削減하여 學費를 減액하고 있다. 韓國文學 協會의 時宜적절한 주제 各級大學院別 특강·세미나가 11월 21일 본관 종합세미나실에서 韓國佛敎와 禪의 眞實을 討論하고 있다. 이밖에 安保研究所에서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을 주제로 11월 19일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佛敎學生會 종교강연 「韓國佛敎와 禪」을 다룬다

佛敎學生會(회장 박상관·도원2) 주관으로 「韓國佛敎와 禪」을 주제로 지난 11월 21일 본관 종합세미나실에서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韓國佛敎의 再定立을 위한 佛敎의 眞實을 討論하고 있다. 이밖에 安保研究所에서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을 주제로 11월 19일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安保研究所 학술토론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

安保研究所(소장 閔天교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金南植(國際問題調査研究所 연구위원)의 「北韓의 政權체제의 形成과 統一戰略」이란 제목의 초청강연에 이어 3명의 學識발표자 金正鎬(都行·3)의 「民族統一의 理論과 實際」, 高在山(政治·3)의 「實現 가능한 統一政策방향」, 盧成勳(경형·4)의 「大學生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査研究」란 주제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教育大學院 세미나 「院堂의 經術文章과 歲寒圖」

教育大學院(원장 李丙喆교수)에서는 제2회 「野外學術세미나」를 지난 10월 26일 남예산 소재 秋史古宅에서 실시했다.

李丙喆교수의 「院堂의 經術文章과 歲寒圖」이란 주제 발표에 同大學院生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同大學院內 各과 지도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민족박물관과 현충사도 참례했다.

한편 李丙喆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朝鮮末期의 經學者 金正喜의 人生과 經歷을 概觀하고 院堂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하면서 憲宗10년(1844) 高弟인 滿船 李尙迪에게 그려준 國寶「歲寒圖」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를 받은 滿船은 1844년 冬至使 李是應(石坡)의 一行을 따라 燕行할 때 滄海에 지니고 가서 吳贊·會위 등 16家の 題贊을 받아 合裝, 張穆의 題詞까지 붙여 귀국, 그것이 「歲寒圖帖」이 되었다고 해설했다.

믿고찾는 동문의집 서로알고 서로돕자

(주)케네디 호텔

대표이사 朴大赫 동문

- 1층:백 화 점
- 2층:커피숍·싸롱
- 3층~5층:객실
- 6층:나이트클럽

경남 울산시 옥교동 95~14

전화 ②1126 ②2303

